



■ 고교 학생부 기록 개선 방안 토론회 예고보도(2018.06.01.)

6/8(금), 고교 학생부 기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8일(금) 오후 3시에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고교 학생부 기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 올해 8월 발표 예정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종합안’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적당한 비중이 주목받고 있고, 이와 병행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속려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학교 교육을 살리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고교 학생부 기록 개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6월 8일(금) 오후 3시에 저희 단체 대회의실에서 ‘고교 학생부 기록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8월 발표 예정인 “2022학년도 대입전형 종합안”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을 국가교육회의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지고 교육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할 교육부가 자신의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가 이처럼 난색을 표하는 주요 주제 중에는 학생부 기록 방식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비중이 해마다 높아져 가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그로 인해 학교 현장의 수업이 활성화되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중적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가 의견을 수합하기로 되어 있는 학종과 정시의 비율 문제는 근본적으로 학생부 기록에 대한 사회적 불신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볼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학생부 기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입전형안 준비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주제로 국민참여 정책속려

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기록이 갖는 입시에서의 영향력과 별개로 기록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 문제, 부모나 사교육 등의 외부 개입 가능성 문제 등도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부 기록이 학교 현장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곳곳에서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데서 나타난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바람직한 학생부 기록 방식을 모색하는 일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생부 기록이 학교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면은 살리면서도, 교사의 업무 부담이나 외부 개입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토론회에서는 학생부 논란이 되고 있는 비교과 요소들에 대한 감축 여부, 학생부를 통한 정성적 평가의 필요성, 학생부의 신뢰성 확보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 06. 0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양신영(02-797-4044/내선번호 512)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2)

■ 행사명 : 고교 학생부 기록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일시 : 2018년 6월 8일(금) 오후 3시~6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
6/8(금) 오후 3시	고교 학생부 기록 개선 방안을 모색 한다.	■ 김태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부위원장)
		□ 김순남(신한대 교수)
		□ 조창완(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연구소장)
		□ 박세영(전교조 조직국장)
		□ 이기정(미양고 교사)